

# Art|Basel Hong Kong

보도자료

홍콩 | 5월 29일 | 2022

아트 바젤은 강력한 작품 거래 및 하이브리드 프로그래밍의 역동적인 주관을 보내며, 홍콩에서의 2022년 에디션을 마무리한다.

- 아트 바젤 홍콩 2022는 페어기간 동안 많은 참석자와 더불어 활발한 작품 거래가 보고된 가운데 오늘 마감되었다.
-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하이브리드 형태는 위성 부스 로 참여하는 75개 갤러리를 포함해, 130개 갤러리와 함께 광범위한 글로벌 관람객에게 다다가고자 일련의 디지털 프로그래밍을 주최했다.
- 아트 바젤과 M+는 최초의 공동 커미션 프로젝트인 엘렌 파우(Ellen Pau)의 현장 동영상 작업인 'Shape of Light' 프로그램을 M+ 파사드에서 선보였다.
- 리드 파트너가 UBS 인 본 페어는 2022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홍콩전시컨벤션센터(HKCEC)에서 개최되었다.

아트 바젤 홍콩 2022 에디션은 부스 현장에 있는 컬렉터와 디지털 방식으로 갤러리와 연결된 수집가 모두에게, 모든 섹터와 분야별 시장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한 세일즈가 보고되는 가운데 2022년 5월 29일 일요일에 마감되었다. 올해의 쇼는 또한 해당지역 예술가에 집중하고 도시와 전 세계에서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든 활기찬 공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홍콩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동영상 이미지의 선구자 **엘렌 파우**(Ellen Pau)의 새로운 장소특정형 작업인 'Shape of Light'는 Art Basel과 M+가 함께 준비하고 UBS가 지원했으며, M+의 LED 파사드에 대한 첫 번째 주요 공동 커미션 프로젝트로 발표되었다. 아트 바젤의 커미션으로 홍콩 관광청과 공동 발표한 아티스트 트램 프로젝트(Artist Tram Project)는 지역 예술가인 **셰리 척 카-와이**(Cherie Cheuk Ka-wai), **스티븐 왕 춘헤이**(Stephen Wong Chunhei), **슘 관이**(Shum Kwanyi)를 초청하여 홍콩을 상징하는 교통수단인 트램의 외벽에 작품을 영사해 선보였다.

아트 바젤의 디지털 이니셔티브인 'Art Basel Live: Hong Kong'이 온라인 뷰잉룸부터 소셜 미디어 방송, 그리고 실시간 갤러리스트와의 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지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페어로 돌아왔다. 페어의 가상 둘러보기에는 중국 본토, 한국, 대만, 싱가포르, 미국 및 스위스를 비롯한 3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개인 컬렉터를 비롯, 케렐라의 코치 비엔날레 재단(Kochi Biennale Foundation)을 포함한 주요 국제 박물관 및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자카르타의 MACAN 미술관;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도쿄, 모리 미술관; 심천 OCAT; 싱가포르 미술관; 베이징 UCCA 현대 미술 센터 등이 있다. 현장에는 1a 스페이스,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Asia Art Archive), 아시아 문화 위원회(Asian Cultural Council), 아시아 소사이어티(Asia Society), 홍콩 아트센터(Hong Kong Arts Centre), 홍콩미술관(Hong Kong Museum of Art), M+, 파라 사이트(Para Site)를 비롯한 모든 주요 홍콩 문화예술 기관의 후원자가 참여했다.

아트 바젤 아시아 디렉터인 아델린 우이(Adeline Ooi)는 “아시아의 선도적인 글로벌 아트 플랫폼인 아트 바젤 홍콩의 역량을 증명하는 훌륭한 문화 예술분야의 다양한 협력, 가상과 물리적 만남으로 정말 뜻 깊은 한 주였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예술을 지지하는 모두를 모았습니다. 우리는 홍콩에서의 페어에 대한 참여자의 모두, 130 개의 참여 갤러리, 홍콩의 기관 및 비영리단체의 헌신, 특히우리가 엘렌 파우의 전적으로 새로운 장소특정형 영상 작업을 LED 파사드로 밝히는 프로젝트를 선보여 준 M+에도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트 바젤의 글로벌 디렉터인 마크 스피글러(Marc Spiegler)는 “2022 년 아트 바젤 홍콩 에디션은 홍콩 시장의 강점과 회복력 모두에 대한 진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관람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어 기간 동안 보여준 꾸준한 판매는 많은 최초 구매자를 포함해 홍콩내에서 성장하면서 참여하는 컬렉터 기반도 보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 포맷의 아트페어는 온라인 거래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더욱 폭넓은 청중과 연결되는 새로운 가상 형태의 플랫폼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페어에 참여한 갤러리는 본 이벤트를 높이 평가했다.

‘컬렉터들이 방문하고, 그리고 구매했어요! 개장 직후 처음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출품한 작품 거의 대부분 매진되었어요.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41 개의 작품을 판매했습니다. 여행을 갈 수 없는 수집가들은 위챗과 왓츠앱을 통해 영상통화를 통해 작품을 보고 구매했구요. 아시아 미술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싶다면 아트바젤을 빼놓을 수 없겠죠.’

**파스칼 드 사르테, 설립자 드 사르테(홍콩)**

Pascal de Sarthe, Founder, de Sarthe

“올해 아트바젤 홍콩으로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저희 부스는 쇼의 처음 몇 시간 동안 거의 매진되었습니다. 아트 바젤은 우리 갤러리가 일본 예술가를 글로벌한 관람객에게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입니다. 쇼에서의 모든 경험은 7 일간의 격리를 보람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츠코 니나가와, 소유자 및 디렉터, 테이크 니나가와(도쿄)**

Atsuko Ninawaga, Owner and Director Take Ninagawa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제한과 올해 아트 바젤 홍콩의 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속에서 주최측은 5 월로 연기했지만 훌륭한 페어를 개최했습니다. 비록 글로벌 컬렉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본 페어에는 홍콩 컬렉터와 미술 애호가, 심지어 아트페어 전에 자가격리를 감수했던 해외 방문객들까지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더 넓은 통로와 참여 갤러리와 작품을 실제로 보고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갤러리와 방문객 모두에게 훌륭한 박람회 가 되었습니다. 처음 3 일은 중요한 컬렉터 그룹이 방문했고 구매했습니다. 펜더믹 관련 여러 제한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세일즈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홍콩은 여전히 아시아에서 미술의 중심지이며, 아트 바젤 홍콩과 함께 계속 그럴것입니다.”

**프레드 슐, 갤러리 드 몽드(홍콩) 설립자 겸 이사**

Fred Scholle, Founder and Director, Galerie du Monde

"특히 M+가 공식적으로 오픈한 이래 개최된 첫 아트 바젤 홍콩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 도시에서 놀라운 에너지를 느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시 직접 만나서 즐겁고, 이 지역의 중요한 사립미술관, 재단 및 컬렉션에도 작품을 배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편 전 세계 관객들은 풍부한 온라인 뷰잉룸, 위챗 콘텐츠 및 라이브 스트림 가이드 투어를 통해 우리와 계속 연결되어, 고품질 콘텐츠와 예술 작품에 대한 열정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곧 더 많은 아티스트의 작품을 이 지역에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리신 차이, 시니어 디렉터, 하우스&워스(홍콩, 그슈타드, 장크트 모리츠, 취리히, 런던, 서머셋, 로스앤젤레스, 뉴욕)**

Lihsin Tsai, Senior Director, Hauser & Wirth

"아트 바젤 홍콩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처음 참여하는 신생 갤러리에겐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아트페어에 충실한 새로운 컬렉터와 큐레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하면서 내 기반이 확장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홍콩에 있는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줌을 통해 모두를 만나는 것을 즐겼습니다. 우리는 부스에 상설 스크린을 배치해, 갤러리와 아티스트 모두와 대화에 관심이 있는 대부분의 방문객을 만났습니다."

**카팅가 타바카루, 디렉터, 카팅가 타바카루 갤러리(부쿠레슈티)**

Catinca Tabacaru, Director, Catinca Tabacaru Gallery

"팬더믹 방역지침이 계속 완화되고 홍콩과 나머지 지역의 전염병 상황이 중대고비를 벗어나면서, 올해 아트 바젤 홍콩에서 화이트 큐브의 역량있는 작가들의 40 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다양한 프레젠테이션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상대로 결과는 매우 낙관적이며 대부분의 소장자는 현지에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오픈 당일에 7 개의 작품이 소장자를 찾았고 £1,000,000(US\$1,300,000) 이상에 도달했습니다."

**웬디 쉬, 아시아 총괄 책임자, 화이트 큐브(홍콩, 런던)**

Wendy Xu, General Manager, Asia, White Cube

"우리 갤러리에겐 너무나 즐거운 경험이었고, 인도네시아 아티스트를 포함해 대부분의 작가 작품이 판매되었습니다. OVR(온라인 뷰잉룸)도 매우 성공적이었고 우리가 선보인 인도네시아 예술가들 역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인도네시아 예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이자, 국제 무대에서 가치가 있다는 사실에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리자 마르쿠스, 매니저, 가자 갤러리(요카르타, 싱가포르)**

Liza Markus, Manager, Gajah Gallery

"현재도 전세계 모두에게 도전적인 이 순간에, 우리 갤러리의 노력에 대해 아시아 고객들이 높이 평가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유럽의 봉쇄 기간 동안 우리를 지원했으며 아트 바젤 홍콩의 포스트 팬더믹 직후, 첫 번째 에디션으로 노력과 지원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물리적으로 박람회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홍콩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예술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박람회에 만족하고 홍콩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밸리스, 공동 설립자, 밸리스 허틀링 (파리)**

Daniele Balice, Co-Founder, Balice Hertling

'우리의 글로벌 컬렉터들은 점점 더 디지털로 페어를 즐기고 활용하는 방식에 익숙해지고 있으며, 우리 갤러리가 발표한 작품과 비디오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펄 램, 설립자, 펄 램 갤러리즈 (홍콩, 상하이)**

Pearl Lam, Founder, Pearl Lam

'아트 바젤은 갤러리가 컬렉터 및 미술계 동료들 한데 모아 만나는 아트 이벤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채널에 걸친 페어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증명하며, 전례 없는 방식으로 아티스트를 홍보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술가의 작품을 아시아의 중요한 개인 및 기관 컬렉션에 배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리코 카와시마, 갤러리 디렉터, 악셀 베르보르트 갤러리(엔트워프, 홍콩)**

Mariko Kawashima, Gallery Director, Axel Vervoordt Gallery

'올해의 프레젠테이션은 코로나 이전 시대만큼이나 결과를 보였습니다. 페어가 오픈하는 시간부터 작품거래가 호조세를 보였고, 특히 여행 제한 규정이 변경되면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샤샤 티트만, 디렉터, 리만 머핀(홍콩, 서울, 런던, 뉴욕)**

Shasha Tittmann, Director, Lehmann Maupin

'물론 직접 현장에 있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갤러리의 전시는 특히 올해 위성 부스로 잘 어울렸다고 할 수 있어요. 저의 작품작이 모두 판매되어, 중국과 일본의 우수한 개인 소장가를 찾아왔어요.'

**아нат 엡기, 아나트 엡기(로스 앤젤레스)**

Anat Ebgi, Owner, Anat Ebgi

'아트 바젤 홍콩에서의 오픈 첫날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는 \$50,000 에서 300,000 에 이르는 작품을 판매했으며, 페어에서 동료 갤러리스트들과 좋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스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고, 멋진 작품을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클라우디아 알베르티니, 시니어 디렉터, 마시모 드 카를로(홍콩, 파리, 밀라노, 런던)**

Claudia Albertini, Senior Director, Massimo De

'무사히 돌아온 아트 바젤 홍콩을 기쁘게 환영해요. LGDR 의 글로벌 런칭 이후 첫 번째로 참여한 페어에서 예술 커뮤니티의 일부가 된 것은 정말 감동적인 경험입니다. 우리 전시는 개인 컬렉터와 기관을 포함해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페어 현장에서 다수의 열정적이고 사려 깊은 젊은 컬렉터를 접하는 것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레베카 웨이, 공동설립자 겸 회장 LGDR(파리, 홍콩, 런던, 뉴욕)**

Rebecca Wei, Co-Founder and Chairman, LGDR

'이번 아트 바젤 홍콩에서의 경험에 매우 만족도가 높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거의 20 점이나 배치해 소개했습니다. 아시아 전역의 컬렉터들 사이에서 위대한 작품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닉 시무노비치, 시니어 디렉터, 가고시안 아시아, 가고시안(홍콩, 파리, 아테네, 로마, 바젤, 제네바, 그슈타드, 런던, 베버리힐즈, 뉴욕)**

Nick Simunovic, Senior Director, Gagosian Asia, Gagosian

'이 어려운 전세계적 상황 속에서도 여기 현장에서 경험한 미술 시장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지역의 젊은 컬렉터들을 많이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M+ 미술관의 개관이 새로운 관객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홍콩의 아트씬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난즈카 신지, 설립자, 난즈카(도쿄, 홍콩)**

Shinji Nanzuka, Founder, Nanzuka

'올해 아트 바젤 홍콩은 매우 고무적이었고 아트 비즈니스도 활기를 띠었습니다. 홍콩 페어는 항상 직관적인 아트 페어였으며, 이곳의 컬렉터들은 작품에 대한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만나게 되어 신기하고, 활기를 되찾은 미술시장의 모멘텀을 느낄 수 있게 되어 너무 설레었습니다.'

**헨리에타 추이링, 설립자, 오라-오라(홍콩)**

Henrietta Tsui-Leung, Founder, Ora-Ora

'페어기간 동안 우리는 기존 친구 및 클라이언트와 다시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갤러리 프로그램과 선보인 아티스트에 강한 관심과 참여를 보여준 다양한 배경의 새로운 수집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본 페어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단단하게 해당 지역의 미술시장을 하나로 모으는 귀중한 플랫폼으로 남아 있습니다.'

**레오 쉬, 시니어 디렉터, 데이비드 즈위너 (뉴욕, 런던, 파리, 홍콩)**

Leo Xu, Senior Director, David Zwirner

**갤러리즈 | Galleries**

아트 페어의 주요 부문인 갤러리 섹터는 96 개의 세계 최정상급 갤러리를 선보이며 아시아와 그 너머의 다양한 예술 현장에 대한 개성있는 현재의 모습을 선보여, 선구적인 20 세기 미술 현장과 최첨단 위치 사이의 새롭고 예상치 못한 만남을 제공했다. 하이라이트로는 로시 앤 로시(Rossi & Rossi)의 카트만두 태생으로 오클랜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체린 셰르파**(Tsherin Sherpa)의 개인전이 포함되었다. 비타민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Vitamin Creative Space)에서 선보인 획기적인 현대 예술가 **정 구오구**(Zheng Guogu)와 **박승천**(Pak Sheung Chuen)의 앞으로 영향력이 기대되는 신작; 그리고 프로젝트 몽클로바(Proyectos Mondclova)가 발표한 **에두아르도 테라자스**(Eduardo Terrazas)와 **가브리엘 드 라 모라**(Gabriel de la Mora), 에드가 오르레이네타(Edgar Orlaineta)의 작품으로, 다양한 세대의 세 명의 멕시코 예술가가 조국의 현대적 관행과 그 진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홍콩 에디션에 새롭게 등장한 얀 운트 얀(Jahn und Jahn)은 1970 년대와 1980 년대의 **앙리 미쇼**(Henri Michaux)의 시각 작품을 선보이는 'Order and Signs'를 선보였다. 참여 갤러리의 전체 리스트는 [artbasel.com/hongkong/galleries](http://artbasel.com/hongkong/gallerie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사이트 | Insights**

올해 16 개 갤러리를 선보인 인사이트 섹터는 아시아와 아태 지역의 중요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별하여 전시했다. 하이라이트로는 **왕찬**(Wang Chuan)의 어 사우전드 플라토우 아트 스페이스(A Thousand Plateaus Art Space) 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뉴욕의 팬데믹 기간 동안 제작된 신작 시리즈를 포함해 지난 30 년 동안 예술가의 창조적 진화를 도표화했다. 엠티 갤러리(Empty Gallery)에서 제공하는 **제임스 T. 홍**(James T. Hong)의 듀얼 채널 풍경 영화는 역사적인 아편 전쟁의 현장 이미지를 남중국해와 홍콩 스카이라인의 현대적 영상과 병치시킵니다.

1960 년대와 1970 년대부터 그의 가장 최근 작품에 이르기까지 작가의 다학제적 실천에 초점을 맞춘 **노리보 이마이**(Norio Imai)의 악셀 베르보르트 갤러리(Axel Vervoordt Gallery) 전시도 있었다. Insights 에 참여한 전체 갤러리 리스트는 [artbasel.com/hongkong/insights](http://artbasel.com/hongkong/insights) 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 디스커버리즈 | Discoveries

올해의 디스커버리즈 섹터는 신진 작가의 개인전을 중심으로 18개의 갤러리를 선보였다. 첫 참가자인 마리아 컨템포러리(Maia Contemporary)는 붐박스, 레코드 플레이어, 자성 테이프, 라디오와 같은 구형 장치를 통합한 **시스코 히메네즈**(Cisco Jiménez)의 새로운 회화 와 조각 시리즈를 선보였다. 잃어버린 세대의 문화적 잔해를 발굴하기 위한 녹음기, 그리고 엄격한 흑백 그림으로 유명한 수리남 예술가 **자비에 로블레스 드 메디나**(Xavier Robles de Medina)의 작품을 전시한 카팅카 타바카루(Catinca Tabacaru)가 있다. 또 다른 하이라이트로는 아나트 엡기(Anat Ebgj)가 제시한 추상화와 정물화의 전통을 확장하는 **알렉 이건**(Alec Egan)의 풍성한 회화가 있다. CLC 갤러리 벤처(CLC Gallery Venture)에서 선보인 밤의 열대우림에서 영감을 받은 몰입형 작품인 **Fan Xi**(판시)의 'The Temptation' 시리즈; 그리고 방콕 시티시티 갤러리(Bangkok CityCity Gallery)가 출품한 독특한 청동 조각품과 극사실주의 드로잉으로 구성된 새로운 작품인 **두사디 헌트라쿨**(Dusadee Huntrakul)의 'A Lens to See World Through' 프레젠테이션이 있다. 디스커버리의 전체 갤러리 목록은 [artbasel.com/hongkong/discoveries](http://artbasel.com/hongkong/discoveri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필름 프로그램 | Film Program

베이징과 취리히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멀티미디어 아티스트이자 프로듀서인 **리젠화**(Li Zhenhua)가 큐레이팅한 필름 섹터에는 아티스트에 관한 15 편의 영화가 홍콩 아트 센터의 루이 쿠 시네마(Louis Koo Cinema)에서 세 차례에 걸쳐 상영되었습니다. 'Bird with no legs'는 1970 년대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신체적, 정신적 이동성에 대한 예술가의 해석을 탐구하는 8 편의 영화를 선보였으며 공동 큐레이터로는 Videotage 가 **마이라 찬**(Myra Chan), **존 초우**(John Chow), **카일 청**(Kyle Chung), **청 윈 산**(Chung Wing Shan), **애런 램**(Aaron Lam), 그리고 **엔젤 링**(Angel Leung)이 함께 참여했다.

---

### 에디터 노트

---

#### 아트 바젤에 관하여

1970 년 바젤의 갤러리스트들로 출범한 아트 바젤은 오늘날 모던아트, 그리고 컨템포러리를 다루는 세계 정상급 아트 이벤트로 자리매김해, 바젤, 마이애미, 홍콩 그리고 파리에서 선보이고 있다. 개최 도시와 지역에 따라 정의되는 개별 에디션은 참여 갤러리, 전시되는 예술 작품, 각 에디션에 대해 지역 기관과 제공하는 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개성을 달리한다. 아트 바젤의 노력은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과 아트 바젤과 UBS 글로벌 아트 마켓 리포트, 인터섹션즈(Intersections), 아트 바젤 팟캐스트, BMW 아트 저니(The BMW Art Journey)와 같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통해, 단순한 아트 페어의 기능을 넘어 확장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artbasel.com](http://artbasel.com)을 참조할 수 있다.

## 파트너

### UBS & Contemporary Art

아트 바젤의 리드 파트너인 UBS 는 현대 미술과 예술가들을 지원해 온 오랜 역사가 있다. 이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미술 컬렉션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트 바젤의 글로벌 리드 파트너로서, 아트 바젤과 UBS 글로벌 아트 마켓 리포트의 공동 발행인으로서 미술 시장에 대한 국제적 대화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한다. UBS 는 또한 스위스의 바이엘러 재단(Fondation Beyeler),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즈 미술관(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등의 미술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UBS 는 Collectors Circle 및 UBS Art Advisory 를 통해 고객에게 미술 시장, 수집 및 유산 계획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현대 미술에 대한 UBS 의 노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bs.com/art](https://ubs.com/art) 를 참조할 수 있다.

아트 바젤의 **제휴 파트너**로는 오데마 피게(Audemars Piguet)로, 현대 미술 프로그램인 'Audemars Piguet Contemporary'는 국제적 예술가들에게 현대미술작품을 제작하도록 지원한다. 아트 바젤은 또한 아트 바젤과 BMW Art Journey 를 공동 운영해 전 세계적인 지원을 펼치는 BMW; 라프레리(La Prairie); 루인아트; 온(On)이 있다.

아트 바젤을 후원하는 파트너로는 테조스(Tezos), 홍콩관광청, 스와이어 프로퍼티(Swire Properties), 맥라렌(The Macallan), 로즈우드 호텔앤리조트(Rosewood Hotels & Resorts), 퀸텀에센셜리(Quintessentially), 그리고 타이핑(Tai Ping)이 있다. Art Basel 의 글로벌 미디어 파트너는 파이낸셜 타임즈(The Financial Times)이다. 파트너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rtbasel.com/partners](https://artbasel.com/partners) 를 참조할 수 있다.

### 아트 바젤 연간 스케줄

바젤, 2022 년 6 월 16-19 일

파리+ par 아트 바젤(Paris+ par Art Basel), 2022 년 10 월 20-23 일

마이애미비치, 2022, 12 월 1-3 일

홍콩, 2023 년 3 월

### 미디어용 온라인 정보

미디어 용도의 정보와 이미지는 [artbasel.com/press](https://artbasel.com/press)에서 직접 다운로드 가능하다. 언론인은 미디어 뉴스레터를 신청해 아트 바젤 관련 정보를 구독할 수 있다.

아트 바젤 최신 정보는 [artbasel.com](https://artbasel.com)을 통해 접할 수 있으며, [facebook.com/artbasel](https://facebook.com/artbasel)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리고 위챗에서 @artbasel로 팔로우가 가능하다.

### 미디어 담당

아트 바젤, 사라 데겐 (Art Basel, Sarah Degen) 글로벌 미디어 담당

Tel. +41 58 206 27 74, [press@artbasel.com](mailto:press@artbasel.com)

아트 바젤, 페이 팡 (Art Basel, Fay Pang) 아시아 미디어 담당

Tel. +852 3575 8487, [press@artbasel.com](mailto:press@artbasel.com)

아시아 홍보 대행

서튼, 캐롤 로(SUTTON, Carol Lo)

Tel. +852 2528 0792, carol@suttoncomms.com

유럽 홍보 대행

서튼, 조셉 램(SUTTON, Joseph Lamb)

Tel. +44 7715 666 041, joesph@suttoncomms.com

북남미, 중동, 아프리카 홍보 대행

핏츠 앤코, 윤리(FITZ & CO, Yun Lee)

Tel. +1 646 589 0920, ylee@fitzandco.art